

황의조 '해트트릭' ... 프랑스 리그 27골 아시아 최다

리그1 22라운드서 시즌 7, 8, 9호 골 보르도 4-3 승리 이끌어
27일 월드컵 최종예선 레바논전 ... '손' 빠진 벤투호 희망으로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황의조(30·보르도)가 프랑스 리그 진출 이후 최초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황의조의 소속팀 보르도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2021-2022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22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 홈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치고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13일 트루아와 18라운드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이후 42일 동안 골 침묵을 지키다가 이날 하루에 시즌 7, 8, 9호 골을 연달아 몰아쳤다.

선발로 출전한 황의조는 전반 17분 레미 우댕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가 걷어내려다가 헛발질로 흘러 공을 쇄도하며 그대로 오른쪽 날로 밀어 넣었다.

기세가 오른 황의조는 팀이 2-0으로 앞선 전반 39분에 절묘한 왼발 감아차기 중거리포로 한 골을 더 터뜨려 시즌 8호 골까지 넣었다.

보르도는 이 황의조의 득점으로 3-0으로 앞섰지만 전반 43분과 후반 12분에 스트라스부르에 한 골씩 내줘 3-2로 쫓겼다.

이후 후반 35분에는 스트라스부르의 동점 골까지 나왔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보르도는 3-0 리드를 날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한 골 차 리드를 힘겹게 지키며 수세에 몰려 있던 보르도를 구해낸 것은 역시 황의조였다.

황의조는 후반 45분에 이날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알베르트 엘리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프랑스 리그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황의조의 득점으로 4-2로 달아난 보르도는 후반

추가 시간에 다시 한 골을 내줬으나 결국 난타전 끝에 4-3, 1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날 세 골을 몰아친 황의조는 리그 통산 27번째 골을 기록, 박주영(37·울산)이 갖고 있던 프랑스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득점 기록(25골)을 경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2월 스트라스부르와 원정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이날 홈 경기에서도 세 골을 폭발해 강한 면모를 보였다.

또 지난 시즌인 지난해 4월 스트라스부르 전에서도 한 골을 기록, 최근 스트라스부르 상대 세 경기에서 5골을 때려 넣는 파괴력을 발휘했다.

이날 승리로 보르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리그 경기 3연패를 포함해 최근 4연패 부진에서 벗어났다.

특히 올해 열린 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세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는데 이날 황의조가 혼자 세 골을 터뜨리며 팀의 무득점, 연패 사슬을 모두 끊어냈다.

황의조 개인으로서는 지난 시즌 리그1에서 넣은 12골을 넘어 프랑스 리그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 골 기록도 바라보게 됐다.

38라운드까지 리그 경기가 16경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17경기에서 9골을 터뜨린 추세대로라면 15골 이상까지 가능한 수치다.

황의조는 이날 경기 전까지 6골로 이번 시즌 득점 순위 공동 20위였다가 순식간에 9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공동 8위로 올라섰다. 1위는 13골의 비삼 벤 에데르(AS모나코)다.

황의조는 24일 터키에서 훈련 중인 대표팀에 합류, 25일 레바논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소속팀 보르도의 다음 경기 일정은 2월 6일 스타드 랭스 전이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리그1 22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보르도의 황의조가 득점한 뒤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이날 그는 시즌 7, 8, 9호 골을 연달아 넣으며 프랑스 리그 진출 이후 첫 해트트릭을 달성,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손흥민 없어서 ... 토트넘, 첼시에 0-2 완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계속된 손흥민(30)의 결장 속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패배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1-2022 EPL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두 골을 내주고 0-2로 졌다.

지난해 11월 초 성적 부진으로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물러나고 콘테 감독이 부임한 뒤 EPL에서 9경기 무패(6승 3무)를 달렸던 토트넘은 기세에 제동이 걸리며 리그 7위(승점 36)에 자리했다.

이달 초부터 다리 근육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손흥민은 이 경기에도 돌아오지 못했다.

원정에 앞서 열린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아직 경기에 뛸 수 없다. A매치 휴식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결장을 예고한 바 있

다. 손흥민은 6일 첼시와의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 1차전을 치르고 다음 날부터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해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7·8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는 국가대표팀 합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공백 속에 해리 케인과 스티븐 베르흐 베인을 선발 공격수로 내세운 토트넘은 전반을 0-0으로 맞선 뒤 후반 시작 2분 만에 첼시의 하킴 지예호에게 선제 결승 골을 허용했다.

이어 후반 10분엔 메이슨 마운트의 왼쪽 측면 프리킥에 이은 차이구 시우바의 헤딩 추가 골이 나오며 첼시는 달아났고, 토트넘은 한 골도 만회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나지완이 24일 신종길베이스볼에서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지완, 신인의 마음으로 새 시즌 준비

15년차에 처음 2군 캠프에서 시작

KIA 타이거즈의 15년 차 나지완이 신인의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한다.

KIA는 2월 1일부터 함평 헬리저스 필드에서 2022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지난해와 달리 1군 선수단이 함평을 캠프지로 삼았고, 2군 선수단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한다.

올해로 15년 차인 '베테랑' 나지완의 시작은 함평이 아닌 광주다. 2008년 KIA 유니폼을 입은 후 처음으로 2군 캠프에서 준비하게 됐다. 지난 시즌 옆구리 파열 부상으로 고전했고, 팀 내 경쟁도 치열해졌다.

나지완은 시작이 아닌 끝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알피엠티레이닝센터에서 건강한 몸을 만든 나지완은 옛 선배 신종길이 운영하는 베이스볼 센터로 찾아 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나지완은 "힘들었던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몸도 좀 추스르면서 지냈다. 아팠던 시즌이었던 만큼 새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도 빨랐던 것 같다. 지금은 몸 상태가 정말 좋다. 또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지완은 주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주장, 베테랑의 책임감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함도 크다.

나지완은 "옆구리 부상을 안고 뛰었다. 그게 가장 미련한 행동이었다. 처음 부상이 왔을 때 관리하면서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걸 안고 하다 보니 옆구리 근육이 더 많이 찢어졌다"며 "주장·고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뛴데다 나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려 했던 게 독이 됐다. 부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니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부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만큼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건강한 몸'이다.

나지완은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로 근력 운동보다는 순발력 운동 위주로 잘 만들어오고 있다.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준비는 손조롭지만 올 시즌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나지완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나지완은 "처음으로 2군 캠프에서 시작한다. 그게 내 현실이다. 현실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된 만큼 또 한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나지완이라는 이름에 또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며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았다. 지금까지 잘 준비한 만큼 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지완에게는 '도전의 시즌', KIA에는 '변화의 시즌'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나성범이 있다. 나성범을 중심으로 KIA는 화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나지완의 파워도 KIA에는 필요한 부분이다. 나지완도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던 나성범과 함께 팀을 이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나지완은 "성범이랑 같은 팀에서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다. 분명 우리 KIA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면서도 "지금 내 마음속에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지만, 지금은 제가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지완은 지난해 관중석을 찾아 그라운드를 내려다본 적이 있다.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다고, 야구와 팬들의 소중함을 느낀 경험이 됐다. 나지완은 "팬 입장에서 그라운드를 보니 우리 선수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행복한 자리라는 걸 그때 새삼 느꼈다"며 "팬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다.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지완이 되면 좋겠다. 최고참이 되어가는 데 후배들한테나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2022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까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표를 잡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안타 하나, 타점 하나, 홈런 하나 모든 부분을 축적해 나간다면 큰 기록이 나올 것이다"며 "쉽 없이 야구 인생을 달려왔는데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다. 팀에 활력소가 되면서 5강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싶다. 모든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가을에 또 한 번 좋은 추억을 만드는 선수가 되고 싶다. 챔피언스필드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